

# 대만 치치 지진 메모리얼<sup>1)</sup>

- 접근과 설계과정 -

김정윤

오피스 박김

## Chi-chi Earthquake Memorial Park, Taiwan - Approach and Design Process-

Kim, Jungyoon

the office *PARKKIM*

### ABSTRACT

Cherishing the dead is based in sadness. Designing a memorial space therefore has an inherent challenge to evoke the feeling that is so personal and varied by providing a physical space. The tendency of memorials, especially in the US after the mid 20th century, has been to emphasize each dead individual, as seen at the Vietnam Veterans Memorial in Washington, D. C., the 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in Oklahoma City, and so forth. In the process of designing the memorial of the Taiwanese Chi-chi earthquake, Cheng Kim Park Robidoux tried to set up a series of spaces through which not only the relatives of the dead but also unrelated visitors could have their own spatial experiences, private rituals and public events, so that they can finally build up a collective memory.

Sky-Well consists of a large bamboo forest enclosing a void. Without a particular entrance and guiding system, visitors stroll and get lost in the bamboo forest before they find the central void. The horror they experienced during the earthquake is melted down into the motion and phenomenology of the bamboo forest whereas the central void is reinterpreted as an empty mind, where people find solace from the sky. Details, such as the bamboo wall to place commemorative flowers and lotus blossom paving, are echoing the theme of rebirth.

*Key Words :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Collective Memory, Chi-chi Earthquake Memorial, Sky-Well, Memorial Device*

## 1. 서론

추모행위의 감정적 기반은 애도이다. 지극히 개인적 이면서 특별한 마음의 변화를, 물리적 요소의 설계로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메모리얼<sup>2)</sup> 설계의 어려움 점인 동시에 백미라 할 수 있다.

추모공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쟁을 기념하고 전사자를 기리는 추모탑의 형태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된다. 지금의 도시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와 트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근대 이전의 공공장소에서는 규모로 압도하는 기념비(monument)들이 상당히 효과적인 장치였을 것이다. 또한 대규모의 사상자를 내는 사건 사고는 대개 전쟁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개의 큰 몸체가 대변하는 '전체적 감흥'은 컸다.

잘 다듬어진 돌에 망자의 이름과 그를 기리는 추모문을 새겨 넣어 세우는 행위는 지금도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추모의 장치(memorial device)이다. 희생의 원인이 전쟁뿐 아니라 테러나 자연재해, 인재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추모의 대상 중 일반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망자 개인에 대한 기념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는 특히 미국의 메모리얼<sup>2)</sup> 설계에서 두드러졌는데, 미국 사회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개인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에서 비롯되어 마침내 '망자 개개인의 추모의 극대화'로 발전되었다 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처음 설계경기의 당선작으로서 발표되었을 때에는 "어딘지 모르게 얼룩얼룩하고 아파 추어처럼 보이는", 혹은 "큰 박쥐를 닮았다" (Malone, 1995:7~8)는 비평을 들었지만 이제는 메모리얼의 전형(prototype)을 바꾸었다는 평을 듣는 미국 워싱턴 디씨의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Vietnamese Veterans Memorial)의 검정석벽이나 보스턴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Holocaust Memorial)의 유리기둥 또한 그 발전된 형태의 맥락에 있다(그림 1 참조).

모던 이후 지구상에 설계되고 지어진 '추모의 공간'<sup>3)</sup>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은 역시 앞서 언급된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이다. 1982년 완성된 이곳은 그 전의 작품들과 확연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경사 차나 각도의 변화 등을 이용한 공간개념의 도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잔잔히 벽을 타고 흐르는



그림 1.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

자료: <http://www.eaglestock.com>

물, 깨끗이 정돈된 잔디 등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추모적 장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전히 가장 감동을 준다고 평가되는 설계요소는 5,000여 명의 전사한 군인들의 이름이 그 전사순서대로 새겨져 있는 검정석벽이다.

이렇게 망자 개개인을 강조하고 그 집합체로서의 메모리얼을 조성하는 경향은 앞에 말했듯이 미국의 경우에서 두드러지는데, 오클라호마시티 국립 메모리얼(Oklahoma City National Memorial, Oklahoma City, USA 1995)과 올해 초 당선작이 발표된 뉴욕 세계 무역센터 메모리얼(911 Memorial, New York, US) 설계경기의 결선작들을 예로 들어보면, 오클라호마시티의 경우는 사망자 수만큼의 조형물(의자)이 공간의 중심을 이루며(그림 2 참조), 후자의 경우 일곱 개 결선작들 대부분이 사망자들의 이름을 새긴 그 무언가, 예를 들어 조명, 문구, 심지어 망자의 얼굴모습이 전사되는 스크린 등을 주요 설계요소로 삼고 있다<sup>4)</sup>.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베트남전과 같은 전쟁 메모리얼과 후자의 경우, 즉 우발적 사고로 인한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한 메모리얼의 설계는 그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2. 오클라호마시티 국립 메모리얼

자료: <http://www.oklahomacitynationalmemorial.org>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문화와 문화의 충돌이며 그 메모리얼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쉽게 정서적 일치감을 얻어낼 수 있다. 즉, 메모리얼의 원인제공인자인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국익을 위해 전사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는 비단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비록 얼굴 한번 본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인지라도 방문자에게 심정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오클라호마시티, 911 사건의 경우)나 인재(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의 경우), 혹은 자연재해(지진, 수해 등)의 희생자를 위한 경우는 그 성질이 좀 다르다. 오보제 중심, 즉 결국엔 개개인의 묘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요소들의 집합체로서의 메모리얼은 망자들과의 직접적 관계가 있는 방문자들, 예를 들어 유족과 친구들에게는 세속적 영향력을 유지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방문자 혹은 관람자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특히 이러한 우발적 사건에 의한 희생자 메모리얼의 설계에 있어서, 그 사건이 어떠한 하나의 지역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쳤고 그 지역에 메모리얼이 위치하게 된다면, 희생자와 직간접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메모리얼과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경우 오클라호마시티의 메모리얼이나 뉴욕 세계 무역센터 메모리얼의 안들이 최적의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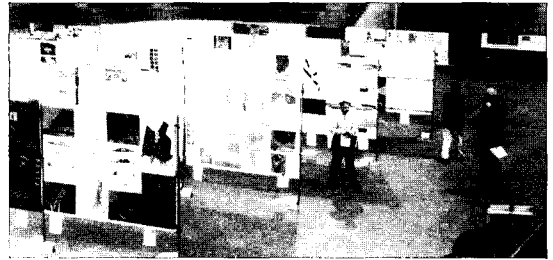


그림 3. 치치 지진 메모리얼 국제 설계경기 2차 심사 광경

자료: Han Pao-Teh(2004), Competition of the 921 Earthquake Memorial, Taiwan Architect 352:72-97

이라 할 수 있는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에게 추모의 염을 불러 일으키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이다. 물의 조용한 흐름, 검정색, 규모, 잔디, 망자의 이름 등 앞서 언급되었던 그 보편적 추모의 장치들은 과연 전지전능의 모범답안일까?

바로 이 질문은 필자가 대만(臺灣) 치치 지진 메모리얼 설계경기(Taiwan Chichi Earthquake Memorial Design Competition)에 쉹 킴 파크 로비두(*Cheng Kim Park Robidoux*)<sup>5)</sup> 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깊게 했던 고민이었다(그림 3 참조).

## II. 본론

필자와 CKPR의 이에 대한 반응은 '공간적 체험(spatial experience)의 최대화'이다. 방문자가 어떠한 시퀀스를 통해 메모리얼의 중심에 접근하면서 맞이하는 매 순간순간이 추모의 염을 불러 일으키는 공간, 즉 박제된 죽은 이의 것이 아닌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들은 설계자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계절, 기후에 따라 매 방문 시 그 발생지점이 변화하게 되며 이는 방문자들에 의해 또 한번 개인화 되어 망자의 이름이 새겨진 석판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어느 정도의 '공간적 유연성(spatial flexibility)'을 가지고 있어 수동적 추모(보고 들어 떠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 추모, 즉 행사의 참여나 모종의 '기여' 등의 행위를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회가 마련되는 메모리얼이야말로 단지 슬픔과 애도의 장이 아닌, 지진으로 인해

공동의 상처를 안고 있는 타이완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설계의 시작이었다.

## 1. 대상지

대상지는 타이완 난토우(南投)시 북동쪽 청싱훙천(中興新村)에 위치한 1.98ha의 나지이다. 원래는 정부 기관건물들이 있었으나 1999년 치치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리히터 규모 7.3의 강진으로 인해 모두 파괴되었던 곳이다.

대상지는 주변 도로들에 의해 모양 지어진 무의미한 췌기형태여서, 설계 작업의 시작은 먼저 추모공간의 틀을 잡는 일이었다. 대상지의 남쪽 경계와 북쪽 경계의 고도차는 10m로 전반적인 지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5%의 경사로 올라가는 형상인데, 이는 별 특색이 없는 설계 대상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물질적 모티브였다.

## 2. 설계요소

### 1) 사원의 재해석: 참조로서의 타이폴로지(Temple revival, typology as reference)

메모리얼에서 일어날 행위들-의식과 명상, 부활에의 의지 등-의 성격을 고려하고 그 정신적 측면을 생각할 때, 사원은 좋은 원형(archetype)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얼의 새로운 타이폴로지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중국 전통 사원의 공간구조와 위계를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각 프로그램간의 연계와 공간의 설계에 적용하였다.

### 2) 격자(grid)

격자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공간에 일정한 규칙을 부여하여 그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하여금 그 리듬을 따라 가다 서서히 장소에 동화되게 하는 격자체계는 메모리얼 설계에서 흔하게 차용되는 도구이다. 여기서는 그러나 한 개의 체계가 아닌, 몇 개의 다른 그리드를 겹쳐놓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규칙이 만들어지도록 하여, 자칫 단순하고 건조한 공간을 만들어낼 위험성을 배제하려 하였다(그림 4 참조).

격자의 교차점에는 지름 1.5m의 원이 놓인다. 먼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지각운동으로 인해 탄생된 타이완 열도는, 아직도 많은 크고 작은 지진을 겪고 있다(대만 관광청, 2004). 지진 당시의 진앙과 지진파의 확산을 나타낸, 동심원들로 이루어진 지도에서 기하학적 영감을 받았다.

### 3) 이원의 기억: 전체와 개인(Dual memory: mass and individuality)

이 공원은 지진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것이자 그들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것이 동시에 1999년 9월 함께 마음 졸였던 대만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넘실대는 하나의 전체인 대나무 숲은 사건에 대한 모든 기억을 한데 모은다. 사연들은 그 흔들림과 일시적 현상들에 녹아 들어 있다. 다른 한 편으로, 2,455명 각 개인들의 이야기는 무시되지 않고 각각 한 송이의 연꽃으로 포장석에 새겨지고 또한 기억의 벽에서 추모객의 상호적 연상과 개인적인 의식(ritual)을 통해 부활된다.

### 4) 여러 종류의 빔(Voids)과 참(Occupancy)<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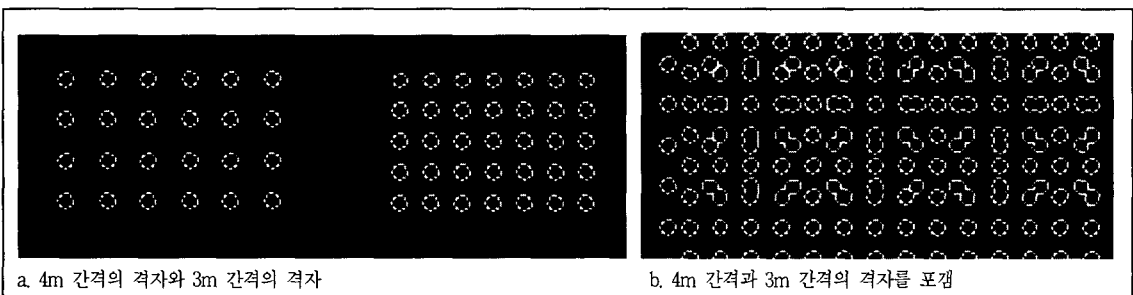


그림 4. 격자의 연구

공원에 들어온 사람들 앞에 펼쳐지는 광장(첫 번째 빔)은 그 뒤에 들어선 큰 매스의 규모를 더욱 과장시킨다. 대상지 좌우변의 공간들(두 번째 빔)은 주로 주변의 사무실과 주민들이, 추모의 행위와 관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동선의 도착지에 만들어지는 큰 공간(세 번째 빔)은 소극적/적극적 추모의 행위를 위한 무대이다. 결국 이 여러 종류의 빔들은 참(occupancy)을 위함이다.

5) 식물의 상징학: 대나무와 연꽃(Symbolism of botanics: bamboo and lotus)

두 가지 식물의 사회적 함의와 믿음, 그리고 전설을 빌려왔다. 하나는 유연함의 상징인 대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의 상징인 연꽃이다. 아열대기후인 타이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수목인 대나무를 이용함으로써 나무는 비로소 그 자체가 관람의 대상이 아닌, 공간을 짓는 중립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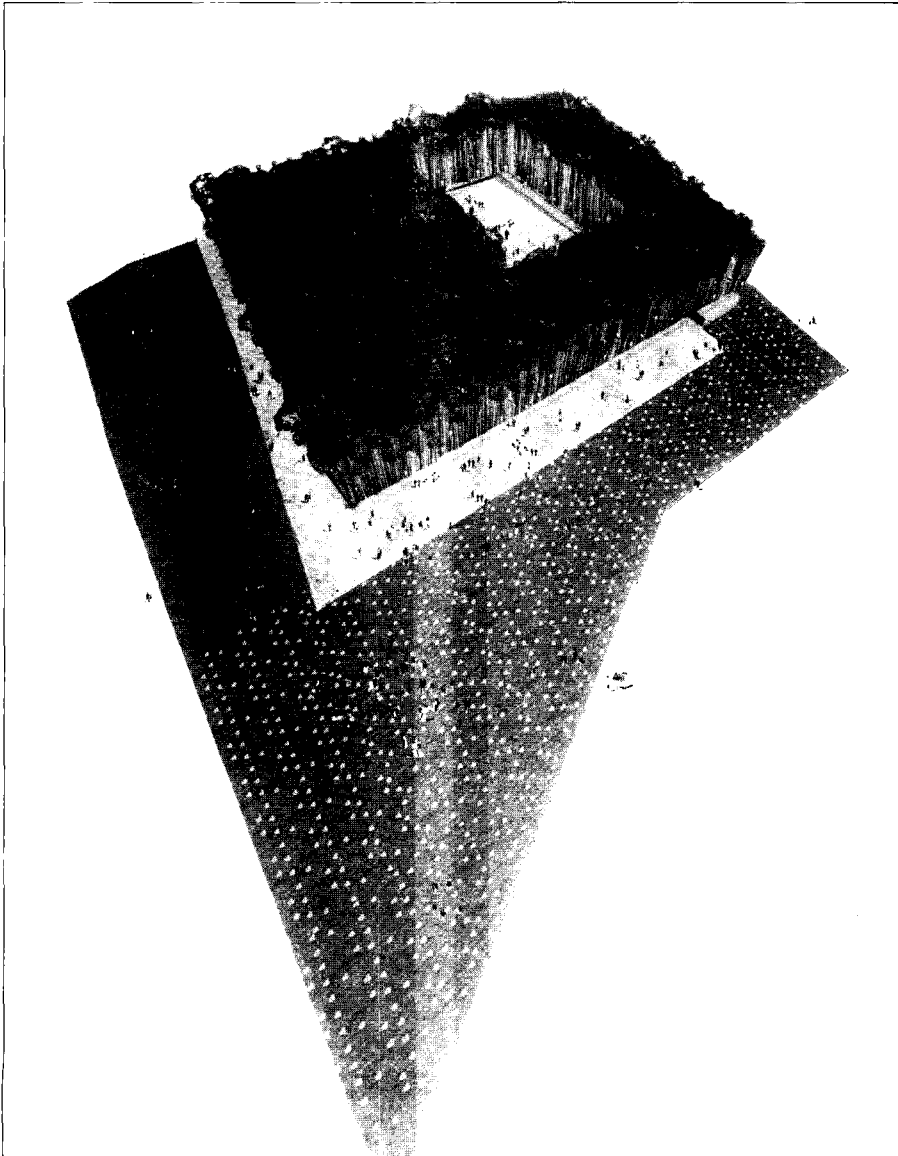


그림 7. 조감도- 공원 전체

6) 단(Podium)과 계단(Steps)

단(壇)은 무대이다. 여기서의 단은 먼저 부정형의 대 상지에 들어선 이용자에게 추모의 공간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단의 모든 너비를 감싸고 올라가는 계단 은 단의 안을 밖으로, 밖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몸짓이 다.

7) 경사로(Ramps)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단 안팎 동선이지만, 한 곳의 규정된 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또 다른 형태의 경협 을 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설계요소들이 배치된 전체 공간의 위계의 정점은 천 정(Sky-Well)이다. 이 메모리얼의 공간은 크게 두 부 분, 즉 광장(plaza)과 단(podium)으로 나뉠 수 있으며, 단 위에는 100m×100m 면적의 커다란 대나무 숲(‘기 등 의 숲’)이 하나의 빈 공간을 감싸 안고 있다. 단 안팎 의 규정된 진입부나 안내표지 없이, 방문객은 중심부의 천정을 발견하기 전에 대나무 숲의 움직임이나 현상들 에 둘러싸인 채 거닐거나 길을 잃거나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며 비워진 마음은 하늘로 통하는 공간인 천 정으로 인도된다(그림 5,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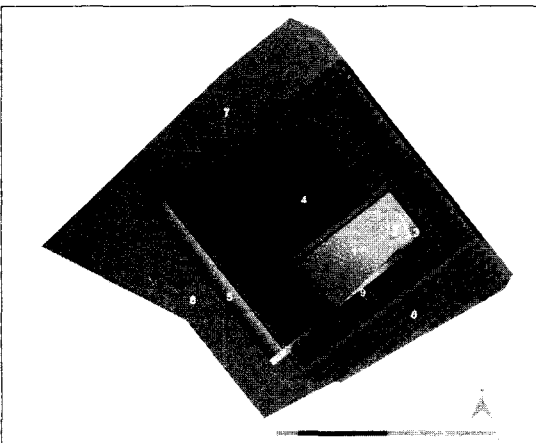


그림 6. 평면도

- 법례 : 1. 천정, 2. 기울어진 땅, 3. 뽕안 벽, 4. 기둥의 숲,
- 5. 숲의 대좌, 6. 커뮤니티의 숲, 7. 커뮤니티의 광장,
- 8. 2,455개의 연꽃, 9. 기억의 벽

1) 천정(天井, Sky-Well)

이 메모리얼의 중심공간이다. 이벤트와 의식을 치를 수 있으며 가장자리를 따라 조명이 설치되어 야간에 효 율적인 공간이용을 돕는다(그림 7 참조).

2) 기울어진 땅(Tilted terrain)

천정의 땅은 3% 경사로 올라가고 그 끝 부분에 삼각 형의 돌출이 생긴다. 공공장소로서의 기능에 불편이 없 으면서 경사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3) 뽕안 벽(Misty slope)

기울어진 땅의 정점에 설치되는 안개분수들이 만들 어내는 뽕안 공기와 그 물기가 맺히게 되는 석벽은 일 시적으로 거울이 되어 보는 사람들을 비춘다(그림 8 참 조).

4) 기둥의 숲(Forest of column)

단 위의 격자 체계 안에 심겨질 대나무들은 1.5m 직 경의 등근 흙에 심겨지며 이 기둥들이 모여 뽕뽕한 숲 을 이룬다. 대나무들은 10년 동안 최소 20m에 이르게 된다. 바람과 비, 햇빛이 대나무들과 부딪쳐 만들어내 는 일시적인 현상들은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평온 하기도 하며 파괴적으로 들리기도 하겠지만, 결국 그 해석과 경험은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그림 9는 천정을 지나는 단면으로서 기둥의 숲과 단 의 관계, 기울어진 땅 그리고 지형간의 관계를 보여준



그림 7. 천정(Sky-well): 야간 광경

대만의 전통행사인 텐등(天燈)은 사람들이 각자 소원을 빌며 빨간 등에 불을 밝혀 하늘로 띄우는 행사인데, 천정 에서 행위가 이루어 지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그림 8. 뽕안 벽(Misty slope)

다. 대나무의 키는 약 8m의 상태로서, 심은 지 3년 뒤의 예상 크기이다.

5) 숲의 대좌(臺座) (Pedestal of forest)

단의 총 너비, 즉 100미터를 감싸고 올라가는 계단은 처음 메모리얼에 들어선 사람들을 이끄는 시각적 장치이자 앉거나 뛰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6) 커뮤니티의 숲(Community fo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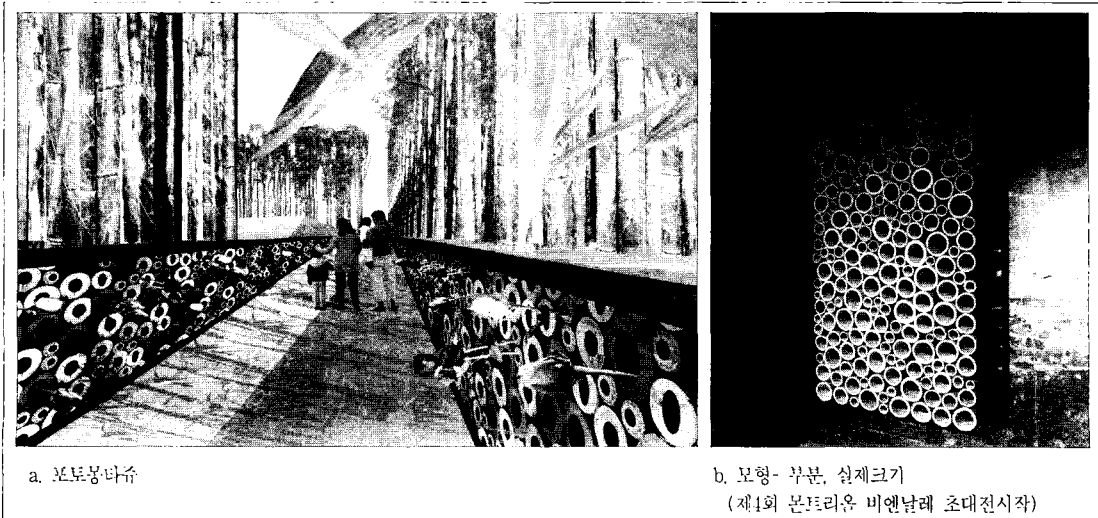
주변의 사무실과 주민들을 위한 대나무 숲으로서 체조나 명상 등 여러 활동이 가능한 곳이다.

7) 커뮤니티의 광장(Community plaza)

비어 있는 공간이자 메모리얼의 진입부의 연장이다. 주변 인구들이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숲보다 더 융통성이 있는 곳이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간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그림 9. 단면



a. 포토몽타주

b. 모형-부분, 실제크기  
(제1회 몬트리올 비엔날레 초대전시작)

그림 10. 기억의 벽 (The wall of memory)

### 8) 2,455개의 연꽃(2,455 lotus blossoms)

메모리얼 진입부에는 돌 포장의 끝부분에 희생자를 상징하는 연꽃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그중 일부는 조명이 들어가 야간의 동선을 안내하게 된다.

### 9) 기억의 벽(The wall of memory)

천정의 동쪽에 위치한 램프의 양쪽에 설치되는 이 벽에는, 대나무를 잘라 꽃아 드러난 단면들이 들어 차 있으며, 이는 방문자들이 꽃 또는 희생자를 기리는 뜻을 담은 다른 물건들을 곁으며 개인적인 작은 의식을 치를 수 있는 장소이다(그림 10 참조).

## III. 결론

설계경기는 참가자에게는 새로운 설계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이고, 주최자는 그로 인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지진이라는, 한 국가를 뒤흔든 자연재해를 기억하고 그 희생자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설계에 있어 개개인을 회상함과 동시에 집합적 기억을 불러 일으키려 했던 시도는, 설계경기에서의 당선으로 인해 실제로 실현해 볼 기회를 맞았다.

단순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공장소가 아닌, 특별한 감성을 자극하여 공간요소와 이용자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야 하는 메모리얼의 설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문화나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요소들을 반영하여 새로운 설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리서치가 진재되어야 한다.

설계(Chi-chi Earthquake Memorial International Competition)를 개최하였고 1차 심사를 통해 50개 팀이 선정되어 피터 쿡(Peter Cook, 영국), 피터 워커(Peter Walker, 미국), 니일 리치(Neil Leach, 영국) 등이 심사위원이었던 2차 심사에서 대상과 2, 3등의 세 개 팀을 선정하였는데 필자가 참여한 Cheng Kim Park Robidoux(이하 약칭 CKPR)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4년 10월 현재 CKPR은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05년 중 완공예정이다.

- 주 2. 이제껏 메모리얼(memorial)이라는 용어는 우리말의 '추모공원'으로 번역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납골공원이나 묘지공원들, 즉 서양의 개념으로 봤을 때 세미테리(cemetery)에 가까운 장소들이 그 명칭을 추모공원으로 바꾸며 이미지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분명히 성격과 태생이 다른 두 가지 다른 공간을 구분 짓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얼이라는 외국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 주 3. 이는 본격적인 형태의 메모리얼을 비롯하여 망자를 기리는 엄을 담은 크고 작은 스케일의 공공장소(public spaces) 및 그 요소들을 가리킨다.
- 주 4. 이 설계경기에서 당선된 피터 워커 팀의 작품은 이러한 경향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http://www.wtcsitememorial.org>).
- 주 5. Cheng Kim Park Robidoux는 이 설계경기를 위해 만들어진 다국적 설계그룹이며, 2005년 완공예정인 치치 지진 메모리얼 설계와 시공감리의 주체이기도 하다. 팀원인 Tsaiher Cheng(대만), 김정윤(한국), 박윤진(한국), Eve B. Robidoux(캐나다)의 이름을 알파벳순으로 조합하여 만든 이름이다.
- 주 6. 여기서의 빔과 참은 자기 다른 장소를 위한 전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겨진(비어 있도록 의도된) 장소이지만 결국은 사람들로 인해 채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공공장소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정의이기도 하다.

## 인용문헌

- 주 1. 편집자 주: 1999년 9월 21일 대만 중부지방에서 공업도시인 타이칭(臺中) 근교 치치 시를 중심으로 리히터 규모 7.5 이상의 강진이 일어나 2,455명의 사망자와 엄청난 재산 피해를 일으켰다. 대만 정부기관인 921 지진재해복구위원회(921 Earthquake Post-Disaster Recovery Commission)는 그 대표사업으로서 921지진추모공원건립을 위한 국제현상

1. Malone, M.(1995) Maya Lin: Architect and Artist (People to know), Enslow Publishers pp.7-8.
2. Han Pao-Teh(2004), Competition of the 921 Earthquake Memorial, Taiwan Architect 352:72-97.
3. 대만관광청(2004) <http://www.tourtaiwan.or.kr>
4. <http://www.oklahomacitynationalmemorial.org>
5. <http://www.wtcsitememorial.org>
6. <http://www.eaglestock.com>

원 고 접 수 : 2004년 10월 14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04년 11월 30일

한국조경학회지 조경작품평가기준 제 4조에 의거하여 심사필